

한전 에너지밸리 '순풍'...42개사 투자 협약

서울 소재 '태왕모터스' 1000억원 등 총 투자 2275억 누적 280개 기업...고용창출 효과 7600여명 달할 듯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의 기업 투자유치가 목표치를 달성했다. 나주와 광주 등 빛가람혁신도시 일대에 형성될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에 순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22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서 한화큐셀코리아 등 42개 기업과 에너지밸리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기업의 투자금액은 2275억원 규모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한전은 당초 올해 목표로 하고 있었던 250개 투자유치 목표치를 크게 뛰어넘는 총 280개 기업(누적)과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에 따른 총 투자금액은 1조 1836억원으로, 고용창출 효과도 7631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협약을 맺은 기업 가운데 서울 소재 (주)태왕모터스는 1000억원을 투자해 나주혁신산업단지에서 재생에너지 및 전기모터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0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남에 있는 (주)대우파워테크도 태양광발전과 설비생산을 위해 총 180억을 투자하고 50명 규모의 신규고용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기업투자가 현실로 이뤄지면서 에너지밸리의 기업유치는 더 가속

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2017년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서 투자협약식을 개최해 에너지밸리가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임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박람회로 대통령직속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13개 중앙부처, 광주·전남 등 17개 시·도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 정책행사다.

한전도 박람회에 참가해 42개 기업과의 에너지밸리 투자 MOU 체결 및 에너지밸리 투자 사례 발표, 투자상담 부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 금융지원, 판로확보, 채용연계 인력양성 같은 투자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을 통해 2020년까지 500개 기업 투자 유치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에너지밸리를 통해 광주·전남지역을 글로벌 에너지허브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산업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뤄낼 예정이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에너지밸리는 광주·전남지역을 에너지산업에 특화시켜 글로벌 에너지허브로 조성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고 한국과 한전이 세계 에너지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조 사장은 "지속적인 기업투자 유치와 창업기업 발굴, 한전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역량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 개발을 통해 에너지밸리를 세계가 주목하는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530.70 (+3.03) 금리 (국고채 3년) 2.16% (0.00)
- ↑ 코스닥 789.38 (+4.06) ↓ 환율 (USD) 1095.80원 (-4.80)

농협 'AI 조기 종식' 총력

24시간 비상방역본부 가동...소독 늘리고 실시간 정보 공유

농협은 최근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범농협 비상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긴급 특별비상방역대책에 나섰다

농협 표준방역행동 요령(SOP)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하고, 통제초소 근무 등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실시중인 공동방제단의 소독횟수도 늘리기로 했으며, 지난 9일 구축된 농협 방역 앱을 활용한 신속한

상황 전파, 농장 예찰 및 방역지도 등 방역활동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농협도 이날 고창지역과 연결된 22번 국도에서 영광축협 공동방제단 차량을 이용해 축산차량과 일반차량에 대한 소독을 펼치고 있다.

전국 가금류 일시이동제한 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이동승인을 허가받은 배합사료 운송차량 등 이동중지명령조치 예외 차량에 대해 추가적인 차량소독을 실시 중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거장의 대표작 삼성TV로 실물 보듯 '더 프레임' 아트 스토어 명화 100선 추가

삼성전자가 예술 작품을 액자처럼 보여 주는 라이프 스타일 TV '더 프레임'을 통해 다빈치, 세잔, 모네, 고흐, 클림트 등 15~19세기 유럽 예술계를 주름잡았던 거장의 대표작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더 프레임에 탑재한 '아트 스토어'에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밀레의 '이삭 줍는 사람들' 등 미술 거장의 명화 100선을 담은 '올드 마스터 컬렉션'을 추가했다. 아트 스토어는 더 프레임 전용 예술 작품 디지털 콘텐츠 구매·구독 서비스다. 명암과 색감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조도 센서 기술'을 통해 선명한 색채와 강렬한 붓 터치까지 정교하게 재현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가 '더 프레임'을 통해 세계 명화를 안방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밀레의 '이삭 줍는 사람들', 보티첼리의 '봄' 더 프레임 이미지. /연합뉴스

청년 일자리 고령으로 채워지는 한국

저출산 고령화 영향 구조 변화
청년층 1년전보다 5만2천명 ↓
고령층 25만2000명 늘어
청년 역대 최저·고령 사상 최대



취업자는 393만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2000명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 6월 3만4000명 줄어든 이후 5개월 연속 뒷걸음질치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감소 폭이 5만명을 넘어서며 2013년 8월 6만명 줄어든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439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25만2000명이나 늘었다.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20만명대를 밑돌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20만명대 후반에 육박하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층이 사라진 자리는 상당 부분 60세 이상 취업자를 위한 자리로 채워졌다.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지난 7월 16.0%였지만 이후 석 달 연속 상승해 16.4%까지 올라갔다.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줄고 노인 취업자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청년층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년간 계속되는 고용안정 영향까지 겹치면서 이 같은 구조적 변화는 더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 실업률은 2015~2016년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갈아치웠으며 지난달에도 같은 달 기준으로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좀체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여행객 올 여름 5조원 썼다

카드 사용 1~3분기 역대 최고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3분기(7~9월) 내국인이 해외에서 쓴 카드 금액이 5조원에 육박했다. 해외 카드 사용실적은 올해 1~3분기 연속 역대 최고 경진 행진을 펼쳤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7년 3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을 보면 이 기간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신용+체크+직불) 금액은 43억 8700만 달러였다. 이는 전 분기보다 4.9% 증가한 규모로, 사상 최대다.

내국인의 카드 해외사용 금액은 올해 1분기 40억2300만 달러, 2분기 41억 8300만 달러에 이어 3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3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중가 기준)을 적용하면 4조9683억원을 해외에서 썼다는 셈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3분기



내국인 출국자 수는 701만명으로 전 분기보다 14.8% 증가했다. 사용한 국내카드는 1430만4000장으로, 전 분기보다 9.3% 증가했다. 1400만장대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카드 1장당 사용 금액은 307 달러로 2분기보다 4.1% 줄었다.

3분기 외국인(비거주자)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은 20억9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전 분기보다 11.7% 늘었지만 1년 전보다 23.6% 줄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공장설립 80건 무료대행

산단공단 광주전남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방재성)가 올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80건의 공장설립 무료대행 실적을 달성했다.

입지선정, 공장설립 인·허가, 환경성 검토 등 공장설립에 필요한 전체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광주공장설립지원센터는 올해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100여건의 상담을 통

해 총 80건의 공장 설립과 환경성 검토를 무료로 대행했다.

유형별 실적은 산업(농공)단지 입주 계약 14건, 공장등록 20건, 신설 9건, 창업 5건, 증설 1건, 업종변경 1건 등이다.

지역별 실적은 나주시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성군 14건, 담양군 10건, 무안군 6건, 영광군 5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의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공장설립지원센터 070-8895-7908.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본 자연장은 아름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 · 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